

2007년부터 출시된 동명의 인기 게임 영화화 '어쌔신 크리드'

액션신은 '압도' 스토리는 '불친절'

스케일과 액션으로 무장한 새해 첫 액션 블록버스터가 온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설정 속에서도 컴퓨터그래픽(CG) 대신 리얼 액션을 추구한 SF·액션·판타지 영화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쌔신 크리드'(이십세기폭스코리아 수입·배급)가 4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어쌔신 크리드'는 2007년부터 출시된 동명의 인기 게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제목 그대로 15세기 암살단의 뒷줄을 물려받은 주인공 '칼럼'이 세상을 통제하려는 '뿔뿔기'와 맞서는 내용이다.

현재의 인물인 '칼럼'이 '해니머스'라는 기계를 통해 과거 암살단이었던 조상의 DNA를 자각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할리우드의 대세남이 된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인공 '칼럼'과 그의 조상 '하렐라' 역을 맡았다. '노예12년', '프로메테우스' 등 전작들에서 이미 확인한 비와 같이 그의 존재감은 확고하다.

다만 이번 영화의 특성상 허공을 상대로 보여줘야 했던 액션신은 그로서는 다소 난감할 수 있어 보인다.

팔목에 무기를 착용하는 설정 탓에 스파이더맨을 흉내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생길법한 스타일이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여성 암살자 '마리아' 역을 맡은 아리안 라베드는 이 영화에서 눈에 들어와 박힌다. 강렬한 눈빛과 화려한 액션 동작으로 남성들의 시선을 잡아 끈다. 특히 그녀가 하렐라의 조력자인 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쌔신 크리드'(이십세기폭스코리아 수입·배급)가 4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람 마이클 패스벤더와 함께 영화 중반 선 보이는 커øl 액션은 아가지기하면서도 전투장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른 모습이 궁극해지는 배우다.

오히려 영화 내내 칼럼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는 데 그치는 '소피아' 역할의 마리옹 코티아르는 다소 걸도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CG를 최소화해 리얼리티 액션을 추구한 만큼 영화 내내 이어지는 격투신과 추격신, 그리고 실제 38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는 고공낙하 장면 등은 아찔하고 압도적이다.

또15세기 스페인의 도시를 재현한 배경과 독수리의 시각으로 이를 전개하는 영상 등은 영화를 화려하게 꾸며준다.

다만 게임에서 등장하는 이 같은 요소를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시키는 탓에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나치게 진지함을 가미한 탓일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는 아찔다. 게임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불친절한 영화다. 11일 개봉.

/뉴스

U-20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전지훈련 명단 발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FC 바르셀로나 삼총사가 합류하는 가운데 1월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U-20 대표팀이 오는 16일부터 3주일 동안 포르투갈 리스본과 트로아이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며 25명의 전지훈련 참가 명단을 발표했다.

바르셀로나 소속인 이승우, 백승호, 장경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작년 협회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조영욱(고려대 입학 예정)을 비롯해 한찬희(전남), 박현빈(대구), 우찬안(포항) 등 기존 주축 멤버들도 발탁됐다.

또 고교 졸업 후 올해 바로 K리그 클래식 무대를 밟는 김진아(인천), 이승모(포항), 윤종규(서울), 이상현, 문정인(이상 울산)도 포함됐다.

고등학교생으로는 유일하게 김정민(광주금호고)이 뽑혔다.

신 감독은 "지난달 제주 훈련에서 선수별 특성을 파악했다"며 "이번 포르투갈 훈련은 대화를 앞두고 장기간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전지훈련 기간에 포르투갈 U-20 대표팀, 스포르팅 B팀 등과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17.7%... 10년 새 4배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율이 17.7%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5000여 명에게 실시됐다.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기타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을 하는 장애인인 17.7%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2006년(4.4%)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을 18.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군구 기초단체 지역까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를 기존 335명에서 450명으로 대폭 확대 배치한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명칭 변경안 확정... 사업 확대 추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 애꿎은 오해를 받았던 K-스포츠클럽이 결국 영어 알파벳 'K'를 떼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5일 현재 운영 중인 K-스포츠클럽의 명칭을 '스포츠클럽'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스포츠클럽 13개를 신규 공모하기로 했다.

K-스포츠클럽은 지역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영 클럽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공클럽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처럼 비춰져 곤혹을 치렀지

K-스포츠클럽 'K' 빼고 '스포츠클럽'으로 3월 말까지 신규 스포츠클럽 13개 공모·선정

만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대한체육회는 비슷한 명칭으로 괜한 오해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칭도 단순명료하게 '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체육회와 전국의 K-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토대로 12월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스포츠클럽',

'코리아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의 'K'를 빼고 'O.O스포츠클럽(예 비O스포츠클럽)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실 스포츠클럽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한체육회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3년 '종합형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같고, 명칭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K-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37개 K-스포츠클럽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관을 개정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2월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발전방안 심포지엄 겸 설명회를 개최한다.

3월 말까지 신규 스포츠클럽 13개를 공모·선정할 방침이며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3년간 6억~9억원이 지원된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을 239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JYP, 트와이스 각종 악성 루머 법적 대응 키로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트와이스'가 인기 만큼 많아진 각종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5일 "금일 부로 트와이스 및 각 멤버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생산 및 유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트와이스와 멤버들에 대한 악성루머, 허위사실 및 인신 공격성 발언, 성희롱 수위에 해당하는 모든 게시물 및 관련 댓글, 게시글의 유포를 통한 확대 재생산 등이 모두 대상이다.

JYP는 그간 자체 모니터링 및 팬의 제보를 통해 트와이스 및 각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확인해왔다.

이에 대한 수위 파악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보호할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JYP는 법무 법인과 과거 게시물등을 토대로 법적 조치 대상 및 조치 수위에 대한 세부 확인을 진행 중이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